독자 설문조사

창간1주년 특집 Ⅱ

애독층 30대(32%) 남자(64%) 대졸(61%)

현대불교를 읽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하고 보다 나은 신문제작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 걸쳐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자 설문조사' 결과 주 독자층은 남자(64%), 연령별로는 30대(32%), 학력은 대졸(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은 현대불교신문으로부터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본지를 통해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 일간지 필요 46%

현대불교신문이 신행생활의 길잡이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독자는 56%였으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독자들의 신행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가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대부분의 불교계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체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도 33%에 달했다. 불교방송과 불교TV, 여타 교계신문과의 정보경쟁에서 창간 1주년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그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응답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남자(64%)가 여자(36%)보다 두 배가량 많아 '치마불교'의 오명을 씻는데 현대불교신문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별로는 30대가 32%, 40대가 24%, 20대 19%, 50대 16%로 독자층이 젊은층이 많았고, 대졸 61%, 대학원졸 16%, 고졸이상(전문대졸 포함) 18%로 고학력시대에 걸맞는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별 분석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7%나 됐으며 교사도 11%로 나타나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뒤떨어졌던 교육분야와 최고급 두뇌집단의 독자수도 증가일로에 있음을 반영, 불교미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보는 기사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1면(47%)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상법석(17.6%) 길을 묻는 이에게(14.9%) 교계소식(14%) 목어(9%)등 10여개의 항목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독자들의 지적 욕구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남성독자는 1면 기사(61.4%)를 여성독자는 주부신행담(34.5%)을 가장 먼저 보고 있어 주부신행담에 대한 여성독자들의 높은 인기도를 반영했다.

또한 지상법석의 경우 남(20.5%) 여(19.8%) 모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1면기사는 대졸(54%) 대학원졸(20%) 대재(66.7%) 고졸(40%)로 학력과 관계없이 교계 내외의 중요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신행담' 여성에 인기

독자들이 가장 즐겨 읽는 고정란으로는 지상법석(11.5%) 길을 묻는 이에게(7.7%) 열린마당(사설포함 6.8%) 나의 수행일기(5.1%)로 각 고정란마다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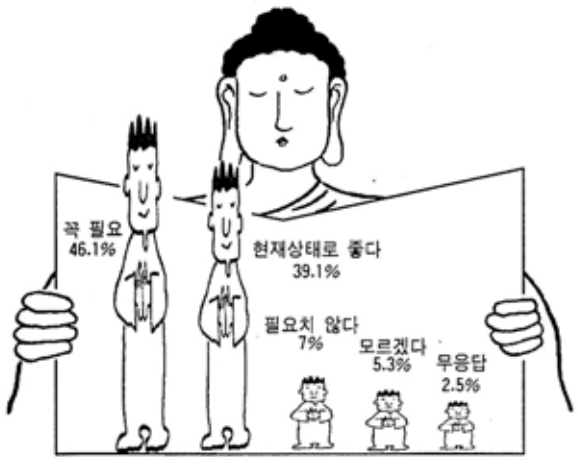
특히 지상법석의 경우 즐겨 읽는 고정란과 가장 먼저 보는 기사를 꼽으라는 두 항목을 종합할 때 단연 앞선 것으로 나타나 승가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고승들의 불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을 읽는 소요시간은 30분 미만(37.6%) 1시간(30%) 2시간 이내(21.1%)등으로 평균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분 미만인 구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독자층이 주부보다는 직장인을 비롯한 직접적인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주부라 하더라도 쏟아지는 정보홍수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신행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바쁜 생활속에서도 독자들의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됐다.

불교계 일간지 필요한가



우선 확대 취급되기를 바라는 기사를 꼽으라는 질문에 스님법어(25.1%) 신행생활에 관한 기획성 기사(17.4%) 경전해설(16.4%) 교계소식등 보도성 기사(15.1%) 교리·신행상담(14.1%)순으로 답했다. 재가자의 신행담(8.6%)과 정치·경제등 시사성 기사, 행사예고등 안내성 기사 등 8개 항목이 큰 권차없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면구성과 체제에 관해서 독자들은 주 16면 발행과 한자표기, 사진등 대부분 현행체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컬러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해 현대감각에 맞는 시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불교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불교종합지(49.6%) 교계 소식지(25.2%)라는 의견이 신행생활지(22.6%)라는 의견을 크게 앞서고 있어 현대불교신문이 창간당시 표방한 신행중심의 이미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언론의 장래를 묻는 질문에서 "불교 일간지가 꼭 필요하다(46.1%)"는 응답이 현재상태로도 좋다(39.1%라)는 의견을 다소 앞서고 있어, 독자들은 현행 주간지체제에 만족하면서도 일간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교계에서 일간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은 7%에 불과해 일간지의 필요성이 불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컬러면 더 늘렸으면

한편 현대불교신문이 벌여온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에 대해 응답자의 65.2%가 알고 있다고 답해 홍보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었으나, 참여했다는 의견은 25.9%에 그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참여계몽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과 관련 응답자의 83.8%가 매우 잘하는 일이며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

"신행생활 도움된다" 94%… '불자가정 스티커' 잘한 일 84%

즐겨보는 고정란 '지상법석' '길을 묻는…' '열린 마당' 順

현대불교가 신행생활에 미치는 영향



내가 본 현대불교 1년 — 남 지 심 〈소설가〉



그만그만한 산봉우리 속에 우뚝하게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준령(峻嶺)은 바라보기만 해도 미덥고 든든하다.

현대불교는 우리 앞에 처음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1년. 한 생명이 무진 세파 속에서 1년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1년 안에 자신이 감당할 몫을 찾고 그 몫을 해낸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불교는 그 힘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창간 1주년을 맞는 오늘, 찬탄과 격려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갈한 공양물을 장만하듯 하루하루 정성을 다 하여 신문제작을 해온 김광삼 사장님 최정희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기자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큰 원칙 아래서 신문을 제작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원칙을 실천한 가장 돋보이는 면이 '산문밖의 禪'이다. 禪하면 일부 스님 혹은 일부 신도만 하는 담장안의 그 무엇인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선을 생활속에, 삶속에 녹여서 그 진미를 누구나 맛보게 해 주는 기사가 가히 일품이다.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불교의 참모습 생생히 전달

정보사회 불교역할 선도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도라는게 시간을 따로 내서 부처님 앞에 무릎꿇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시찰찰 생활과 삶속으로 이어져 갈 때 기도의 참다운 의미가 살아 난다고 믿고 있는 나로서는 더욱 이 기사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현대에 맞는 오계(五戒)의 재해석, 불자들이 스스로 불자임을 자신있게 드러내 보이게 하는 스티커 보급운동, 문화강좌 개설 등은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로 가꾸어 가려는 의식화 작업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여러가지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 현대불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현대불교는 교계에서 주목받는 언론지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처님 정법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안목을 가꾸어 줄 책임감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신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내기 위해 한달에 1번 정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그달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일(교계 내·외를 막론하고)을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토론케 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게 했으면 한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기준은 부처님 정법에 입각해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이 축적되어 갈 때 불자 한사람 한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부처님 정법에 맞게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 질 때 이 사회는 진리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불교 발간 취지속에도 포함돼 있듯이 불교의 세계화 문제다. 몇년내로 음속의 두배빠른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지면 아침 일찍 파리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점심을 뉴욕 레스토랑에서 먹고 중국이나 소련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잠은 한국에 있는 집에서 자게 된다고 한다. 모두가 그처럼 숨가쁘게 살 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세계가 한 생활권이 되는 것 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사고도 거기에 맞게 열려가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매체의 광고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가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 가자고 주장한 광고문안을 본 것 같다.

그렇다. 우리 불교는 현대화 과정에선 타 종교에 비해 분명 뒤졌지만 미래사회속에선 인류를 제도해 가는 고등종교로 가장 우뚝하게 설 것이다. 그 앞에 현대불교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불교 성지 순례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 · 네팔 9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 · 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동참금 : 160만원
· 일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 · 스와이엠부넛 등)—서울

황산 · 구화산 6일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동참금 : 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 · 화련 · 타이페이—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